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 **버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 P **주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 05~08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요일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 공연전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속 한미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1

JANUARY 2015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January

2015년 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January,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5년 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제877회

심천무(心泉舞) – 인남순의 춤

Simcheonmu(Dance springs from mind)-Dance by In Namsun

01. 03.



제878회

전설의 설장고 이부산 타(打)의 향(香) 2015

Scent of Percussion 2015 by Master of Seoljanggo, Lee Busan

01. 10.



제879회

한국예(藝)푸리무용단의 '예인의 향기'

'Scent of Yein(artist)' by Korea Yepuri Dance Company

01. 17.



제880회

흠(기쁜마음으로), 흠(환하게 웃으며),
락(맘껏 즐기는), 락(음악)

'Hui(with a joyful heart), Hui(with a bright smile), Rak(enjoying to the fullest), Rak(music)'

01. 24.



제881회

락음국악단과 함께하는 '신나는 음악여행'

'Exciting Journey into Sound' with Rageum Orchestra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01. 31.

*공연일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공연료는 무료입니다. Free Admission

우리민속 01 JANUARY 2015

한마당



심천무(心泉舞) - 인남순의 춤

Simcheonmu(Dance springs from mind)-Dance by In Namsun

2015. 01. 03.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60년 인생에 전통 무용의 한 길을 걸어온 예인 인남순의 춤 무대로 공연이 펼쳐진다. 첫 무대는 궁중무용 '보상무'로 놀이형식을 띤 춤이다. 공을 던져 보상반에 넣으면 상으로 목단꽃을 주며 넣지 못했을 땐 벌로 얼굴에 목점을 찍는 흥미로운 춤이다. 두 번째로는 김천흥류의 살풀이를 선보이는데 구음이 없으며 명주수건을 어깨에 얹는 동작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으며,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처용무'와 드라마 '황진이'에서 소개된 '여령무', 1828년 효명세자가 예제한 '춘앵전'을 공연한다.

마지막 무대는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으로 마무리한다. 오늘 공연은 한국인의 정서와 역사가 스며있는 전통무용을 해설을 곁들여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흥과 신명의 장을 선사할 것이다.

This program has been prepared by In Namsun who pursues Korean traditional dance during her lifetime.

A court dance piece 'Bosangmu' will lift the curtain. This particular dance is derived from a game throwing a ball into a vase on bosangban (literally, treasure table), if the ball lands in the vase wins a peony flower, otherwise a black dot is painted on one's face as a penalty. What follows is Salpuri dance of Kim Cheonheung school recognized for its repetitive movement of throwing a long white silk scarf over the dancer's shoulder without gueum(singing non-lexical vocables). 'Cheoyongmu', a court dance performed to dispel evil spirits and pray for tranquility, inscribed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Yeoryeongmu' introduced through tv drama 'Hwang Jini': 'Chunaengjeon' created by the crown prince Hyomyeong of Joseon dynasty in 1828 will be performed in sequence. 'Nongak' literally farmer's music will elaborate the ending of a stage. Throughout the performance, related explanation will be accompanied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and help them fully appreciate the long history and spirit of Korean traditional dance.

공연순서 PROGRAM

- 01 보상무 Bosangmu
- 02 살풀이 Salpuri
- 03 처용무 Cheoyongmu
- 04 여령무 Yeoryeongmu
- 05 춘앵전 Chunaengjeon
- 06 농악 Nongak



대표 인남순(한국전통문화연구원 원장)

출연 인남순, 윤연희, 정금희, 김경진, 나연주, 이하경,
김지우, 고우리, 박현미, 최순희, 강영미, 박신영,
송민숙, 김성훈, 신승균, 이호윤, 김동윤, 김준호

전설의 설장고 이부산 타(打)의 향(香) 2015

Scent of Percussion 2015 by Master of Seoljanggo, Lee Busan

2015. 01. 10.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50년 넘게 풍물로 예술적 삶을 걸어온 설장고 명인 이부산의 '타(打)의 향(香)' 공연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사람들의 일상사에 방해가 되는 여러 액살을 물리치고 기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는 기원의 소리 호남 축원 덕담을 선보인다.

이어서 호남 우도 풍물의 대표적인 장구가락을 정리하여 장구만의 합주곡으로 구성된 '이부산류 우도 설장고 대합주', 5세부터 시작한 명인의 설장고 가락에 맛과 멋을 느끼게 하는 '전설의 설장고 이부산', 판소리 춘향가 중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대목으로 관객들과 함께 배워보는 '사랑가'를 공연한다. 마지막 무대는 대보름, 정월 초하루 같은 절기에 풍물패가 집집마다 지신밟기를 하여 마을의 신명을 역어내고 한 판의 신명나는 굿을 펼쳐내는 호남 우도 풍물 판굿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Under the title of 'Scent of Percussion', a master of seoljanggo Lee, Busan who has been performed pungmul (Korean folk music tradition) for the past 50 years presents a percussion concert.

The opening of the stage will be Chukwon Deokdam of Honam region, which is performed to expel various evil spirits thwarting people's daily lives and to promote good fortune. What follows is 'Udo Seoljanggo Orchestra of Lee, Busan school' of which representative janggu (hourglass-shaped drum) rhythms of Honam Udo Pungmul were collected and composed for a percussion ensemble. In 'Legendary Seoljanggo, Lee, Busan', the audience will appreciate splendid janggu solo performance of master Lee, Busan who started playing the janggu at the age of 5. Also, the audience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learn 'Sarangga' from pansori Chunhyangga. Lastly, Honam Udo Pangut is prepared. Pangut is a performance played with Jisinbaggi(treading the earth spirit) by a pungmul troupe before and after Deaboreum, the first day of the full moon in the new year to create a festive atmosphere and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village people.

공연순서 PROGRAM

- 01 호남 축원 덕담 Honam Chukwon Deogdam
- 02 이부산류 우도 설장고 대합주 Udo Seoljanggo Orchestra of Lee, Busan school
- 03 신 운우풍뢰 2015 Sin Wunwupungroe 2015
- 04 전설의 설장고 이부산 Legendary Seoljanggo Lee, Busan
- 05 관객과 함께하는 판소리 '사랑가' Pansori 'Sarangga'
- 06 호남 우도 풍물 판굿 Honam Udo Pungmul Pangut



대표 이부산(중요무형문화재 진주 삼천포농악 전수조교)

출연 이부산, 권준성, 김태호, 박지웅, 장지성, 최동환, 김지수, 조용성, 김복희, 박경수, 김강수, 김유나, 최련, 김주영

한국예(藝)푸리무용단의 '예인의 향기'

'Scent of Yein(artist)' by Korea Yepuri Dance Company

2015. 01. 17.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한국예(藝)푸리무용단의 전통춤 공연으로 옛 예인들의 춤사위를 재현하고 그들의 예술적 가치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공연을 준비하였다.

첫 무대는 교방청 예기들이 즐겨 추었던 춤으로 어전연회나 내연(內宴)에서 추었던 춤사위로 예인의 짙은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축원무'를 선보인다.

이어서 장고를 어깨에 비스듬히 둘러메고 아름다운 연보(蓮步)로 걸어 다니며 채놀음과 허리놀음의 우아한 동작들이 돋보이는 교방장고춤, 고(故)김수악 선생의 구음과 함께 여인의 섬세함과 애절함을 함께 표현한 교방굿거리춤, 아름다운 몸짓과 역동적인 춤사위로 흥과 멋을 살린 반고무, 이른 봄날 아침에 버드나무가지에서 노래하는 피꼬리를 보고 이를 춤으로 표현한 춘앵전을 공연한다. 마지막 공연은 흥겨운 사물반주에 맞춰서 독특하고 짜임새 있는 안무 구성으로 경쾌하면서도 절도있는 몸짓으로 어우러진 신명의 소고춤으로 마무리한다.

Korea Yepuri Dance Company presents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of which movements of dancers of the past were reproduced for the purpose of reconsidering their artistic value. The opening of the stage will be 'Chukwonmu', which is a dance frequently performed at royal court banquets by Yegi (Korean female courtesans). In 'Gyobang Janggochum', dancers crossly wearing janggo on their shoulders present elegant waist and wrist movements with graceful steps. What follows is 'Gyobang Gutgeorichum' in which dancers express feminine delicacy along with singing non-lexical vocables called gueum of the late master, Kim Suak. 'Bangomu' showing elaborate yet dynamic dance moves: 'Chunaengjeon' depicting a nightingale fluttering around willow branches on a pleasant spring day will be staged in sequence. The last performance as to 'Sogochum' will embellish the ending of a stage through the dance performance by cheerful dancers following exhilarating Pungmul tunes.

공연순서 PROGRAM

- 01 축원무 Chukwonmu
- 02 교방장고춤 Gyobang Janggochum
- 03 교방굿거리춤 Gyobang Gutgeorichum
- 04 반고무 Bangomu
- 05 춘앵전 Chunaengjeon
- 06 소고춤 Sogochum



대표 배순열(춘앵전보존회 감사)
예술감독 송미숙
출연 강외숙, 홍채섭, 황경선, 김성민, 변영화,
박수지, 한보라, 윤보라, 조선화, 김민지

喜(기쁜마음으로), 喜(환하게 웃으며), 樂(맘껏 즐기는), 樂(음악)

Hui(with a joyful heart), Hui(with a bright smile), Rak(enjoying to the fullest), Rak(music)'

2015. 01. 24.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관현악 공연으로 국악의 대중화와 관객과의 어울림, 소통을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무대를 준비하였다.

첫 무대는 2015년 새해를 여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통 장단과 악기별 특색이 돋보이는 '비상 2015'를 선보인다. 다음으로 국악실내악과 함께하는 국악가요로 경쾌하고 흥겨운 '배 띄어라', 국악 관현악과 영화 OST가 만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영화 OST '맘미미아'와 '댄싱퀸', 태평소의 매력적인 음색을 통한 영화 '산체스의 아이들' OST가 이어진다. '국악 관현악과 함께하는 풍물 놀이의 향연'은 기량이 뛰어나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신명으로 하나 되는 뜨거운 공연장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다. 오늘을의 마지막 공연은 귀에 익숙한 불후의 명곡을 국악 관현악으로 편곡한 곡들로 새해의 따뜻함을 담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Gugak (Korean Classical Music) string orchestral performance will be presented under the theme of popularization of gugak, communication and harmonization with the audience. 'Soaring 2015' containing a hopeful new year's message lifts the curtain. Based on traditional rhythms, this song shows each instrument's distinctive tones. Next, a cheerful gugak gayo (popular song) piece entitled 'Set a boat afloat' played by gugak chamber music. Popular movie soundtracks, 'Mamma Mia!' and 'Dancing Queen' reinterpreted for gugak string quartet will be performed; and a song from the movie 'Children of Sanchez' will also be played with taebyeongso(a Korean double reed wind instrument) accompaniment. In 'Feast of Gugak Orchestra and Pungmulnori', the audience may fully appreciate the mirth and merrim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long with individual performer's exquisite talents. Lastly, a series of familiar masterpiece songs that are rearranged into traditional Korean orchestration will convey warm and hopeful thoughts to the audience.

공연순서 PROGRAM

- 01 서곡 - 비상 2015 Prelude - Soaring 2015
- 02 국악가요 - 배 띄어라 Gugak Gayo - Set a boat afloat
- 03 국악 관현악과 영화, 그 황홀한 입맞춤... Movie soundtracks with Gugak Orchestra
 - 영화 맘미미아 The movie, Mamma Mia!
 - 영화 댄싱퀸 The movie, Dancing Queen
- 04 태평소 협연 'Children of Sanchez' with Taeyeongso accompaniment
- 05 국악 관현악과 풍물놀이의 향연 Feast of Gugak Orchestra and Pungmulnori
- 06 국악 관현악과 함께하는 불후의 명곡 Musical Masterpieces with Gugak Orchestra



대표 이관용(한푸리가무악코리아 상임지휘자)

출연 이진우, 이성준, 이정훈, 송승민, 강성부, 기현지, 김아라,
김주현, 송준영, 임주영, 강해림, 최윤정, 한주연,
광개토사물놀이(박지웅, 장지성, 최동환, 권준성)

락음국악단과 함께하는 '신나는 음악여행'

'Exciting Journey into Sound' with Rageum Orchestra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2015. 01. 3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예술의 본 모습인 악(樂)·가(歌)·무(舞)를 지향함으로써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음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의 집합소 락음국악단의 공연을 선보인다.

락음은 '즐겁고, 행복한 음악 예술'이란 뜻으로 이에 걸맞은 공연으로 구성 하였다. 본 무대는 옛것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 바탕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이어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성과 세련미가 더해진 음악과 시대에 부합하는 창작곡을 통해 색다른 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켜나가고자 뜻을 모은 젊은 국악인들의 열정과 새로운 국악의 모습을 락음국악단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Rageum Orchestra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presents a performance of Korean classical and folk music. Aiming to play tunes appreciated worldwide while keeping the authentic feature of Korean music, Rageum is made up of a group of young gugak(Korean classical music) musicians pursuing the quintessence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 Music, Song and Dance. According to its name's meaning: pleasant and happy music, Rageum will fill the stage with exciting and joyful melodies. Based on the spirit of Beopgochangsin (creation of new things by emulating old things), the group will perform newly interpreted traditional and classical songs along with creative numbers. This program will offer the audience a unique opportunity not just to enjoy new aspec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ut also to feel the passion of young musicians united their minds for promoting the superiority of traditional culture.

공연순서 PROGRAM

- 01 프론티어 Frontier
- 02 산조합주 Sanjo Ensemble
- 03 항해의 노래 A Song of Sailing
- 04 아리랑 환상곡 Arirang Fantasia
- 05 경기민요 Gyeonggi Minyo
- 06 판소리 Pansori
- 07 장타령 Jang Taryeong
- 08 모듬북 협주곡 '타' Drum Ensemble 'Ta'



대표 박용호(락음국악단 대표)

예술감독 진성기

출연 락음국악단 무대 이건설 음향 한연수